

전남 농어촌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온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2개 시·군 516개 사업장 850명 근무 27일까지 결원 188명 추가 모집...매달 인건비 230만원 지급

전남도가 농어촌 마을에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164개 사업장에 188명의 결원이 발생해 추가 모집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만 18~39세)를 배치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약정기간인 2년 동안 마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역할을 높이고,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청년이

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22개 시·군에 1038명이 정원이다. 이 사업에는 올해만 국비 71억원, 도비 53억원, 시군비 56억원, 기업 24억원 등 2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교통·숙박비를 포함해 인건비로 매달 230만원이 지급되고 사업장은 컨설팅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참가해 약정기간이 지난 청년활동가 200명 중 163명의 고용이 이뤄졌으며, 이들에게 대해서는 분기별로 25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전남도는 현재 516개 사업장에서 850명이 근무, 결원 188명을 전남일자리통합

정보망(job.jeonnam.go.kr)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 사업장 48곳, 기존 사업장 116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전남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업장별 청년활동가 전화 면접 및 유튜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과 인구 감소,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농어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마을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중에 거주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지사품질인증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도내 인증 업체 329개

전남도는 도내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 환경을 구축하고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지사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한 업체이며, 도내 지정 검사기관(전남 식품산업연구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후 성적서와 검사비 지원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업체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세한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판로확보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남도내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농·수·축·임산물 등 총 329개 업체로 순천농협 남도김치의 김치류, 담양 명진식품의 한과류, 화순 화산불미리(주)의 불미리죽, 무안 황토랑양파죽의 양파죽, 해남 천사의 땅의 고춧가루, 진도 강황영농법인의 울금차 등 1351개 제품에 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면역력 좋은 전남 특산품 먹고 코로나 극복 힘 내세요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전남산 특산품을 경북도로 보내기 전 도의회 앞에서 "경북 힘내라"는 팻말을 들어보고 있다.

전남도의회 매실·표고버섯 음료·양파즙 등 경북 의료진에 전달
전남도의회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에 전남산 면역력 강화 특산품을 보내고 응원했다. 전달 물품은 1500만원 상당으로 광양

진과 자원봉사자에게 전달된다. 전남도의회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사람의 현형형사, 전통시장 물품 사주기 운동 등을 벌였으며 조만간대구·경북을 위한 성금 모금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경북도

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용재 의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분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전남도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확대

지난해 62억원서 80억원으로 개인 11억·법인 2억원 용자도

전남도가 원예특작분야 재배농가에 시설·장비를 지원 규모를 늘려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재배를 유도하기로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 62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하고, 자부담 50% 가운데 30%를 용자로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용자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 2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나주, 강진, 해남, 진도 등 4개 시군에 대추토마토, 참다래·

무화과, 석, 부추·배추·꽃고추 등 7개 품목을 선정했다. 올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재해형 하우스, 버섯재배사, 생분해성 멀칭제, 방풍시설 등 164ha에 80억원을 투입하고, 과수·채소 전문단지 육성을 위해 친환경 과채류 생산시설(시설하우스), 집하장, 작업장 등 6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10억원을 수도권 등 대도시 공동물류·수송체계 구축 및 물류비에 지원한다. 전남도는 물류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어 전남농산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신기술 농자재, 난방비 절감 등 생산시설·장비 지원 확대, 과수·채소 등 경쟁력 있는 친환경 특화작목 발굴 및 단지 조성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소재 전남도 종자관리소 나주로 이전

반남면 청송리에 신청사 착공

전남도는 최근 광주에 소재한 전남도 종자관리소를 나주시로 이전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종자관리소 신청사를 나주 반남면 청송리 일원에 총사업비 124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2만 5704㎡, 연면적 5121㎡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감염 예방을 위해 건립 기공식은 생략하며 202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신청설 청사는 3개동으로 본관동, 농기계창고, 원종창고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별관동, 농자재창고, 건조·정선창고 등을 증축할 계획이다. 도 종자관리소는 그동안 직원 40여명이 광주와 나주에 위치한 종자생산지를 동시에 관리하며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리농지의 90%를 차지한 나주로 이전해 앞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안정적 우량종자 생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종자관리소 이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확인가 고시를 마치고, 나주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산촌지역 대기질 전국서 가장 깨끗하다 아황산가스·오존 전국 평균 20% 수준

전남도내 산촌지역의 공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4~7배 청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내 12개소의 산촌의 빗물과 눈(강수)의 이화학적 특성 및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분석한 결과 강수의 산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아

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은 전국 평균의 4분의 1, 7분의 1 수준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남 12개소를 포함해 전국 65개소에 대해 매월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결과 강수의 산도(pH)는 연평균 pH5.6로 전국 평균(pH 5.7)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아황산가스

일평균 농도는 1.1ppb, 오존 8시간 평균 농도는 7.1ppb로 각각 전국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밝혀졌다. 또 이산화질소 일평균 농도는 2.6ppb로, 전국 평균의 약 7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산림지역 강수의 산도 회복 원인을 분석하고, 대기질 향상과 매년

1000만그루 나무 심기 등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공기가 청정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며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